

“힐링 여행 떠나요” 언택트 해양레저 여행지 경남 ‘창원짚트랙’



1 경남 창원시 창원짚트랙
2 제트보트 3 엠티워크



아니라 해발 94m 높이 건물 외벽을 걸으며 아찔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엠티 워크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창원짚트랙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언택트’ 시대에 맞춰 소규모 인원으로 떠나는 여행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음지도 진해해양공원에 바다를 가로질러 내려오는 공중 활강 시설이 2019년 10월 개장했다.

창원시가 민간투자를 유치해 건설한 해양레저 체험시설인 창원짚트랙은 음지도와 소고도(소쿠리섬)을 연결하는 활강 시설이다.

체험객들은 음지도에 세운 높이 99m 타워에 올라가 아시아에서 가장 긴 길이 1.39km 쇠줄을 타고 바다를 가로질러 소고도를 시속 80km의 빠른 속도로 이동하며 짜릿함을 만끽하며 내려간다.

소고도에 도착해서는 440마력 엔진을 장착한 제트보트를 타고 출발지로 돌아온다.

여섯 개 라인으로 가동하며 두 사람이 함께 탈 수 있는 짚트랙뿐만

트렌드가 변하면서 새로운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타워 전망대와 이탈리아 레스토랑, 카페 등 복합문화공간을 운영하며, 타워 외부에는 경관조명을 설치해 야간에도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코로나19 전염병 예방수칙 이행 우수사례로 매일 영업장 방역 소독과 무균 소독실을 운영 중이다.

창원짚트랙 관계자는 “코로나19 걱정 없이 안전한 지역 비대면 관광지에서 레저스포츠를 즐기시길 바란다”며 “앞으로 경남 지역 관광산업을 선도하는 랜드마크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진해신항

스마트그린산단

마산해양신도시

2022. 1. 13. 창원트레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